



김기태 동문은 “초판본은 열심히 노력한 사람의 사소한 오류까지도 품은 책이라는 부분이 가장 공감된다”며 애정을 드러낸다.

(사진=최예령 기자)

모든 책의 초판본 집합소 ‘처음책방’

정다연 기자 ekdusgood@khu.ac.kr
최예령 기자 herry2020@khu.ac.kr

우리는 항상 새로운 이야기로 인생의 초판을 써 내려간다. 매 순간 최선을 다하지만 불완전하고 미숙하다. 당시에는 떠올리기도 싫은 기억일 수 있겠지만 이를 통해 한 걸음 더 성장하면서 이런 불완전함이 애뜻해지는 순간이 온다. 초판본이 그렇다. 시간이 지날수록 불완전함이 채워지는 개정판이 있어도 누군가는 초판본을 그리워한다. 이런 초판본을 그대로 간직하기 위해 애쓰는 곳이 있다. 충북 제천에 위치한 ‘처음책방’은 작가와 편집자의 첫 순간, 첫 설렘을 보관하고 있다. 우리신문은 ‘처음책방’을 운영하며 약 10만 여권의 창간호와 초판본과 함께하는 김기태(국문학 1982·세명대 교수) 동문의 이야기를 들어봤다.

초판본·창간호 전문서점 ‘처음책방’

김 동문과 함께 처음 마주한 것은 그의 연구실을 가득 채운 책이었다. “연구실에 초판본이 많이 쌓여 있어요. 처음책방에 가면 더 많이 있습니다.” 책을 보고 놀란 우리를

보며 그는 웃음 지었다. ‘이 세상에 처음 나온 책들만 모아 놓은 책방’이라는 뜻이 담긴 김 동문의 ‘처음책방’은 10만여 권의 초판본과 창간호들로 모여 있다.

초판본과 김 동문의 인연은 오류에서 시작됐다. 그 인연은 1988년, 졸업 후 삼성출판사에 입사하며 처음 편집을 맡은 채희문 작가의 『철탑』에서 시작됐다. “내가 만든 첫 책이지만 너무나 놀란 것은 그렇게 열심히 봤는데도 저자 소개부터 틀려 있다는 것이었어요. 다른 책도 항상 그렇게 열심히 교정 보고 편집을 할 때는 안 보이던 오타자가 인쇄되면 또 보이더라고요” 그는 본인만 그런 오류를 범하는 것인지 싶어 다른 책들을 찾아보기 시작했다. 그렇게 오류는 김 동문이 초판본과 창간호를 수집하는 계기가 됐다. 단지 오류를 비교하기 위해 하나하나 취미로 수집하던 것이 지금의 ‘처음책방’으로 탄생하게 됐다.

학문적으로도 유의미한 초판본 역사 특별전 개최하기도

“초판본은 열심히 노력한 사람의

사소한 오류까지도 품은 책이라는 부분이 제일 공감 가요.” 초판본을 처음 접했을 때부터 김 동문은 초판본의 애환을 느꼈다. 그러나 애환과는 달리 첫 순간을 돌이켜 생각해보면 김 동문이 처음 마주했던 오류는 사실 그다지 달갑지 않은 않았다. 출판사에서의 일화를 떠올리며 “오타자로 수많은 항의 전화를 받았다”며 등골 서늘했던 순간을 생생하게 전했다. 오류를 발견했을 때, 작가는 작가대로 독자는 독자대로 난리가 났다. 하지만 이렇게 달갑지 않은 않았던 순간이 초판본과의 인연을 쌓는 중요한 계기가 됐다.

오류는 노하우를 남고, 시간이 지나 오류는 가치로 탈바꿈한다. 초판본은 수정을 거쳐 초판 2쇄가 되고, 개정판이 돼 완성으로 향한다. 이러한 점에서 초판본은 국어학, 역사학 여러 분야에서 의미를 지닌다. 이들은 연구자들에게 연구 자료에 필수적인 요소가 되며 당시 시대상을 살펴볼 수 있는 자료가 되기 때문이다. 김 동문은 역사의 가치를 지닌 ‘뿌리 깊은 나무’ 특별전을 열기도 했다. 창간호부터 강

제 폐간된 폐간호까지 잡지만의 역사와 시대의 역사도 소장 중이다. 김 동문은 “‘뿌리 깊은 나무’ 외에도 역사를 담는 자료를 많이 소장 중이다”며 “호외도 전시해 보고 싶다”고 전했다.

한정된 공간 무한한 이야기

하나하나 수집한 초판본은 어느덧 연구실의 책꽂이를 가득 채웠다. 비좁은 자리에 꽂혀있던 초판본은 더 넓은 곳으로 향했고 그곳이 지금의 처음책방이 됐다. 초판본·창간호 전문서점이라는 풋말에 걸맞듯 책방엔 초판본과 창간호가 가득했다. 우리에게 익숙한 최인호 작가의 『광장』 초판본부터 만화책, 잡지, 교과서 초판까지, 초판본의 집합소였다.

초판본과 창간호 박물관이라 볼 수 있는 처음책방은 누군가의 사랑방이 되기도 한다. 3대 가족이 찾아와 추억을 찾고 초판본 작가가 찾아오기도 한다. “사람으로 따지면 내가 태어난 곳을 고향이라고 하잖아요. 처음책방은 책의 고

향입니다.”

하지만 김 동문은 아쉬움이 있다고 말한다. “박완서, 최인호 선생님 등 여러 선생님들이 왔다 가셨는데, 결국에 많은 책 속에 본인의 초판본을 찾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신 것이 가장 안타까워요” 작가들이 자신의 옛 초판본을 찾으려 책방에 와도 모든 책을 펼칠 수 없기에 하나하나 찾기 힘든 것이다. 실제로 책방 벽면에는 초판본이 빼곡히 자리했다. 그리고 한 쪽에는 아직 펼쳐지지 않은 자료들이 무수히 쌓여 있었다.

김 동문은 이번 겨울 처음책방의 새 단장을 계획 중이다. 휴업이 끝난 뒤 처음책방은 어떤 모습으로 재탄생할까. 그의 작은 바람은 초판본·창간호 아카이빙이다. 수많은 초판본·창간호를 처음책방에서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 중이다. 김 동문의 취미가 모여 책방을 만들었듯, 처음책방이 모두를 위한 사랑방이 될 것이라고 말한다.

김 동문은 “1989년 10월 28일, 제1회 결혼식 날이 제일 기억에 남는 초판본 발행일”이라고 말한다. 이 순간에도 새로운 초판본을 쓰는 우리에게, 한 가지 질문을 던진다. 당신의 초판본은 어떻게 쓰여지고 있는가.